

7명의 젊은 아티스트...연일 가요사 신기록 '세계가 들썩'

방탄소년단은 누구?

2013년 결성 3세대 아이돌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 '인기' 작곡가 방시혁 '기획' 작품 인문적 사유 담긴 가사 눈길

28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콘서트에 출연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연일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가요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세계는 지금 'BTS 열풍'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풍에 휩싸여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방탄소년단 관련 신기록들로 세계가 들썩인다.

빌보드 세 번째 1위, 미국·영국 동시 1위,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곡 동시 진입, 5곡 연속 '핫 100' 진입해 두 번째 '톱 10', 뮤직비디오 유튜브 2억뷰 돌파 등...

이들의 노래에 지구촌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탄소년단이 다른 그룹과 차별되는 것은 멤버 모두 작사 작곡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노래에 자신들의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아티스트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2 COOL 4 SKOOL'로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보이 그룹의 3세대로 평가받는다. 1세대는 1996년 데뷔한 H.O.T이며, 2003년 등장한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빅뱅, 슈퍼주니어 등이 2세대다.

아이돌 그룹 3세대인 BTS는 전 세계인의 사랑과 꿈을 노래한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뷁, 정국 등이다. 이전의 그룹들이 대형 기획사의 프로젝트에 의해 양성돼 다소 춤과 노래가 유사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국내 젊은이들 뿐 아니라 동시대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한다. 히트곡도 또한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 '페이크 러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스트리밍 송', '디지털 송 세일즈' 등은 곡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있기까지는 막후의 주역으로 방시혁을 꼽는 이들이 많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그는 그룹을 기획하고 멤버들을 조련했다. 많은 이들이 방시혁을 일컬어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 그는 청소년기부터 음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계는 예술과 철학을 아우르는 미학이라는 학문이 그의 음악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의미는 무엇일까. 방송 작가 구자형은 '세상이 편견과 시대의 억압'이라는 총알 때문에 '피탐 눈물 흘리는 청춘'들을 위해 '기꺼이 방탄조끼'가 되고자 한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조선대학교 교수인 신형철 평론가는 'BTS: The Review' (저자 김영대·알에이치코리아)에서 "어떤 팀이 멤버 각자를 캐릭터화해서 지속적으로 집합적 서사를 써 나가는 사례를 여태 본 적이 없다"며 "동시대 청년들의 보편적 감정입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투사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서의 서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한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그들만의 목소리로 스토리를 써오고 있다는 점이 남다르다.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다가오는 이 유다.

BTS가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영향을 받은 책들을 언급하면서 당달아 관련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2016년 정규 2집 '윙스'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인 '데미안'은 불안한 청춘의 내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네버 워크 얼론' 앨범에 수록된 '봄날' 뮤직비디오에 판타지 작가인 아슬러 르 퀴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모티브로 차용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발매된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의 주제는 '영혼의 지도'였다. 책은 미국 시카고 용 연구소에 있는 머리 스타인 박사가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쉽게 분석해 정리했다. 원래 페르소나는 배우의 가면을 의미한다.

융은 그 같은 연장선에서 "페르소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써 형성된 인물"로 보았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는 개인의 의식적 생각과 감정을 타자에게 감추거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기능 콤플렉스"라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처럼 인문학적 사유와 철학적 가사를 통해 자기들의 노래를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은 김영대가 쓴 'BTS: The Review'에서 이들의 음악을 이렇게 묘사한다.

"BTS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음악과 예술을 창조하는 팀이지, 특정한 노래나 콘셉트를 강요받는 뮤지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탄소년단이 13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서 생방송 된 'SNL'에서 뮤지컬 게스트로 출연해 지난 12일 발매한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의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feat. Halsey'의 무대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액기부 클럽 청년멤버...인성·지성 겸비한 '출신'

광주 출신 BTS멤버 제이홉

국제교 춤 동아리서 활동

노래가사에 5·18 언급 화제

남다른 고향·모교 사랑 귀감

오는 28일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기념 콘서트에 출연하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가운데 광주 출신인 제이홉(J-Hope·정호석)이 노래 가사에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이홉은 지난 2015년 발매된 '화양연화 pt.2' 수록곡 '마 시티'(Ma city)의 자신의 랩 파트에 "내 광주 호시기도 전국 팔도는 기어. 날 불러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놀라라 062-518"이라는 가사를 썼다. '7시'는 당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회원들이 광주를 지도상 위치에 따라 7시라고 비하한 데서 나왔다.

이날 콘서트에 출연하는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팬들 중 일부가

제이홉이 다녔던 댄스 학원(조이 댄스)을 찾는다는 소식도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이홉은 2013년 광주 국제고등학교(25회)를 졸업했다. 그는 배우 문근영 이후 국제고가 배출한 대스타로, '춤의 신'으로 불리며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고에서 이처럼 대영스타를 배출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은 "소규모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에는 상설, 자율 동아리가 100여 개가 있다. 학교 측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동아리가 많아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제이홉 또한 당시 댄스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오늘의 스타로 발돋움하는데 토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후배들은 세계적 스타로 성장한 선배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뿐 아니라 앞으로 도 전봉을 살려나간다면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다른 무엇보다 제이홉은 고향과 모교

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제이홉은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광주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모교의 저소득 가정 후배들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제이홉은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재단 관계자는 "제이홉이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면서 남몰래 기부했다"며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꿈나무와 어린이 환자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이홉은 재단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된 상태다.

한편 방창재 국제고 교장은 "인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인 글로벌 학생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정호석군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맘껏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문화학생 258명

방탄소년단 공연 관람

광주시교육청 초청

광주지역 다문화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400여 명이 오는 2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무대에 오르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관람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초·중·고 다문화학생 258명, 학부모 102명, 교사 51명을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 초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연 관람은 한국관광공사 후원을 받아 다문화학생들의 문화 체험활동 지원,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행사로 전국적으로 티켓이 1분 24초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광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콘서트 관람을 희망하는 다문화학생들을 신청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